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데리다 해체주의를 표현한
바디아트 제작

2015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전공
장 유 리

데리다 해체주의를 표현한 미디어아트 제작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전공
장 유 리

인 준 서

장유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사회는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여러 분야의 가치관 및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된 사회 속에서 예술 문화 영역의 바디아트는 융합화 혹은 차별화함으로써 다원성을 추구하며 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 현대인의 신념과 가치관도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나름의 자아정체감을 갖기 위해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구조를 탈피하여 보다 개성화, 다양화 된 욕구를 추구하고 표현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응용하여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바디아트의 영역과 장르의 확대를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해체주의 및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개념과 특성의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국내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발표된 선행연구 자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이 나타난 바디아트 이미지를 분석하여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해체주의의 개념 및 특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바디아트를 페이스페인팅, 바디페인팅, 문신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나타난 바디아트의 해체주의 특성을 퇴폐성, 역사성, 양성성, 유희성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페이스 페인팅 3점, 바디페인팅 3점, 의 총 6점의 바디아트 디자인을 계획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바디아트에 표현된 해체주의 특성은 탈현상에 따른 퇴폐성, 차연적 특성에

따른 역사성,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양성성 그리고 유희적 요소에 의한 유희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작품 I, II는 해체주의 특징인 탈현상적 특성을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추의미와 자유로움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새로운 형태의 결합을 표현하는 역사성을 나타내었으며, 작품 IV는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는 양성성의 특성을 부각시켰다.

작품 V, VI은 미 완성적이고 우연적인 형태의 유희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해체주의의 특성을 바디아트에 적용함으로써 바디아트의 다양성 있는 디자인과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폭넓고 융합된 연구를 통해 예술분야에서의 바디아트의 발전을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해체주의의 개념 및 발생	4
2. 데리다의 해체주의	7
1) 차연	10
2) 상호텍스트성	11
3) 불확정성	13
4) 탈현상	14
3. 바디아트에 표현된 해체주의	15
1) 바디아트의 개념 및 유형	15
2) 바디아트에 표현된 해체주의	23
III. 작품제작	41
1. 제작의도 및 제작방법	41
2. 작품제작	43
1) 작품 I	43
2) 작품 II	47
3) 작품 III	50

4) 작품 IV	54
5) 작품 V	58
6) 작품 VI	61

IV. 결론	65
---------------------	-----------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바디아트의 유형	18
<표 2> 선행연구에 나타난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따른 바디아트 유형	25
<표 3>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적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	42
<표 4>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45
<표 5> 작품 II 디자인 이미지	48
<표 6> 작품 III 디자인 이미지	52
<표 7> 작품 IV 디자인 이미지	56
<표 8> 작품 V 디자인 이미지	59
<표 9> 작품 VI 디자인 이미지	63

그림 목 차

<그림 1> Face-painting	22
<그림 2> Body-painting	22
<그림 3> Origin tattoo	22
<그림 4> Scarification	22
<그림 5> Gold dust	28
<그림 6> Wonderin princess	28
<그림 7> Timthumb	28
<그림 8> Gesine body art	28
<그림 9> Mardi gras	32
<그림 10> Landscapes	32
<그림 11> Lady two face	32
<그림 12> Conceptual	32
<그림 13> Human temple	36
<그림 14> Native pop	36
<그림 15> Lymari Millot	36
<그림 16> Robot girl	36
<그림 17> Olan	40
<그림 18> Third sex	40
<그림 19> Suit	40
<그림 20> Phrexian scaled	40
<그림 21> 작품 I	46
<그림 22> 작품 II	49
<그림 23> 작품 III	53

<그림 24> 작품 IV	57
<그림 25> 작품 V	60
<그림 26> 작품 VI	64

I. 서론

현대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요소들이 각각의 독립된 형태로 서로 영향을 끼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예전의 고정적 체계로 지속되던 절대적인 사회·문화적 이념과 체계의 경계를 탈피하고 기존의 관습과 사조 및 지배 문화의 한계를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모던의 다원적 시대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모더니즘이 형식을 중시하고 질서나 일반성, 보편성을 추구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임의성, 유연성, 대중성과 상호 텍스트성을 중요시 하였으며, 장식과 치장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 다방면의 문화 예술 분야로 확산되어 바디아트, 행위예술 등으로 다채롭고 의외성이 짙은 새로운 경향의 미술사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에 모더니즘 체계가 공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난 이후 모더니즘의 맹신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반격에서 이제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조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 및 미끄러짐에 대해서 사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는데¹⁾,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철학으로 해체주의(Deconstructivism)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후반의 문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의 전 영역에 표출되었다.

해체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예술분야에서도 그 시대의 사상과 관념을 특징짓는 예술사조의 출현으로 이어져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었고, 예술사조의 영향을 받은 바디아트도 등장하게 되었으며, 20세기 후반부터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특정한 문화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²⁾

1) 임기택(2014),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이론, 서울:spacetime, p.31.

이러한 해체주의 이론은 메이크업에 있어 파격적 또는 전무후무한 다양한 기법의 사용, 과도한 색상 강조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관습을 초월하는 전위적인 방식 등을 일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이같은 기법과 가치관을 리드 하고 있다.³⁾

이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션(정세희⁴⁾, 윤숙원⁵⁾, 건축(윤재은⁶⁾, 이수미⁷⁾) 메이크업디자인(방수진⁸⁾, 방기정⁹⁾)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바디아트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바디아트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표현을 분석하여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함으로써 해체주의를 통한 디자인 개발 및 표현양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시각적 예술로서의 바디아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예술로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조형 예술로서 바디아트의 영역과 장르의 확대를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은 해체주의와 바디아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바디아트에서의 해체주의의 표현특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와 작품을 제작하는 실증연구

-
- 2) 윤숙원(2010),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
 - 3) 방수진(2008), 자크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
 - 4) 정세희(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5) 윤숙원(2010),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윤재은(2007), 해체주의건축의 공간철학적 의미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7) 이수미(2010), 현대 상업공간 실내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혼성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방수진(2008), 자크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9) 방기정(2011), 하이브리드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를 병행하여, 페이스 페인팅 3점, 바디 페인팅 3점, 총 6점의 바디아트 작품
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해체주의 개념 및 발생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 사상 중 하나로,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자크 데리다의 이론이다. 이는 현재 서구의 사상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최근의 비평 이론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철학 및 문학 이론이다.¹⁰⁾ 1960년대에 널리 확산된 구조주의(Structuralism)를 자아나 주체, 개인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개체에 대한 특권을 구조에 부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을 나타내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러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해체주의는 자크 데리다를 중심으로 구조주의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¹¹⁾ 해체주의는 철학적 측면에서 프랑스 포스트구조주의가 영향을 미치면서, 구조주의에 내제해 있던 포스트구조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점차 외면화, 이론화되고 방법론적으로 세련화 된 것이다.¹²⁾ 롤랑 바르트가 구조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후기구조주의로 전환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구조주의의 기본명제들을 그 근본부터 뒤흔들며 등장한 대표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¹³⁾

해체주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하부 개념이며 사전적 의미의 해체는 형성된

10) 김주현(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 문화연구, 7(4), p.579.

11) 김지연(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복식, 21, p.294.

12) 한경예(2004), Issey Miyake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의상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13) 윤소정(1996), 해체주의적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것을 해체하는 의미에서 쓰이거나, 철학적이고 문학적이며 추상적인 가설이나 내적 모순을 노출시키기 위해 쓰인다.¹⁴⁾

해체는 일차적으로는 철학적 내용들과 주제들이라든지 철학적·시적·신학적·사상적인 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요구와 관련하여 특히 그리고 불가분하게도 의미 있는 틀, 제도적 구조들, 교육적·수사적 규범들, 그리고 그것에의 수요와 관련한 법칙, 권위, 재현의 가능성들의 문제¹⁵⁾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확산에 의해 해체이론은 여러 포스트모던 철학 사조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결국 포스트모던의 철학적 경향들은 이성비판이라는 차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¹⁶⁾

해체주의는 미국에서 차연의 철학이라고도 불려지며, 데리다의 사상과 연관된 몇 부류의 문학비평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서 데리다 사상을 그 나름대로 발전시킨 것이다. 데리다는 포스트구조주의자로서 형이상학, 인과율의 개념, 동일성, 주체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비판한다.¹⁷⁾ 형이상학은 고대 플라톤 이래 서구사상의 뿌리를 이룬 세계관으로, 현대까지 대부분의 사상과 인간의 행동 양식을 규정지은 개념인데,¹⁸⁾ 문학이나 건축, 예술분야에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 해체라는 것은 두가지 경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해체주의 디자인은 포스트모더니즘 율타리 안에서 이해를 구해야만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¹⁹⁾

즉 해체는 새로운 상관관계를 구성하거나, 지각의 대상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시간성에 대한 개념

14) 윤숙원(2010), op. cit., p.5.

15) 제이슨포웰(1983), 데리다 평전, 경기:인간사랑, p.308.

16) 노영화(2008), “원근법 형성과 디지털시대 디자인에 있어서 해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90.

17) 이상민(2013), “해체주의 관점에서 아르망의 오브제 작업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지, 14(3), p.200.

18) 하임성(2010), “디지털 미디어 아트와 해체주의적 특성과 앞으로의 전망”, 기초조형학연구, 11(3), p.524.

19) 노영화(2008), op. cit., p.90.

을 해체하여 정확하게 재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를 과거의 실재성이 놓여 있는 순간과 장소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부여한다.²⁰⁾

또한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자신의 역할을 위해 결과가 예정된 목적론적인 계획을 추구하지 않으며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어 온 기존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해체주의에 나타난 것은 표면적 불안정을 통해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어 온 기존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²¹⁾

다시 말해서 하나의 기호에 하나의 의미만 존재하지 않고, 기호와 의미 사이에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다의생산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호를 봤을 때 의미와 해석은 주관적으로 다양한 해석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의미는 확정적이지 않은 불확정성을 지닌다.²²⁾ 데리다는 유일한 진리란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은 독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진리의 현존을 믿어왔던 서양철학 사상의 전통을 그 근원부터 해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절대적인 기준을 불가능하며 불확실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다.²³⁾

따라서 해체주의란 인간의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전형적인 구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를 창조시키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여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체주의적 개념과 관련된 경향들을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과 연관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20) 서희선(2006), 자연-해체 이미지의 해석과 표현 양식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8.

21) 김혜정(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의상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3.

22) 김지원(2013),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나는 알레고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연구, 14(1) p.142.

23) 김주현(1999), op. cit., p.580.

2. 데리다의 해체주의

데리다는 모든 진리와 존재에 대하여 회의와 불신을 품었던 니체의 영향을 받아, 모든 신적인 존재는 모두 단두대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로고스가 형성한 목적론적이고 위계서열적인 형이상학적 사유체계의 대립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²⁴⁾ 데리다는 무엇이 충전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데 관련된 후설의 난제들과 또 다른 수준에서는 언어, 기호, 말하기와 글쓰기의 본질에 대한 후설의 개념에 주목함으로써 해체를 발전시켜 나갔다.²⁵⁾

해체주의란 그 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함으로써, 문학 비평의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절대적 의미의 근원을 해체하고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자는 것으로서 개념이나 진리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 상황의 불확실성 혹은 불확정성 및 불안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으로서 지배 문화로부터 제외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 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다.²⁶⁾

데리다는 ‘현전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철학적 사유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이항대립이나 이분법을 없애려는 시도에서 출발 하였으며 주요 공격목표는 말과 글을 포함한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석, 혹은 의미의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구조를 만들어 내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특성을 지니는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²⁷⁾

해체의 개념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데리다의 개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하이데거의 철학과 세계관은 기계를 분해하고 재조

24) 조민희(2008), *자끄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법 여성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

25) 제이슨 포웰(1983), *op. cit.*, p.69.

26) 김혜정(1998), *op. cit.*, p.25.

27) 이수인(1999),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 양식”, *복식문화연구*, 7(6), p.944.

립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하이데거 철학의 가장 중요한 환경 가운데 하나는 과학화, 기술 문명화되는 사회였다.²⁸⁾ 반면 데리다에게 해체는 방법론이 기보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데리다의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데리다의 철학은 결코 개념화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시도한다면, 그의 철학의 본질을 파괴하는 셈이 된다.²⁹⁾

데리다에게 있어서 해체는 어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끝없는 운동적 지향성을 갖는다. 하이데거의 철학이 어느 정도의 과정과 운동을 거쳐 인간적인 거처를 갖는다면, 데리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 의문과 의심으로 점철된다.³⁰⁾

해체의 본질은 여기에서든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든 사유가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해체는 모든 것을 운동 가운데 두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 사유를 위한 공간을 열고, 이러한 사유에 필요한 공간 내기(spacing)을 사유하는 것이다.³¹⁾

데리다의 전략은 어떤 원전이 자기의 메시지를 정립하는데 성공하고 있음을 가정하는 대신에, 그 원전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요컨대 그는 원전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대신에 원전을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³²⁾

해체주의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구조주의적 이해가 갖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해체주의가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방식은 역사주의적이기보다는 구조주의적 이해에 내재한 논리에서 발견되는 내부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틀이 갖는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한편으로 해체주의가 구조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측면 또한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³³⁾ 하지만 한층 정확히 얘기하자면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적 논리의 전개가 그 논리의 침체화와 함께 후기 구

28) 조규형(2008), op. cit., p.25.

29) 허진영(2014), op. cit., p.47.

30) Ted W. 제닝스(2014), 데리다를 읽는다, 바울을 생각한다, 서울: 그린비, p77.

31) Ibid(2014), p.77.

32) 윤숙원(2010), op. cit., p.11.

33) 조규형(2008), op. cit., p.37.

조주의 내지는 탈구조주의로 변모해 나가고 스스로의 출발점과는 전혀 다른 종착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⁴⁾

이는 곧 해체주의가 오늘날 어느 한 지역·한 국가가 홀로 독존할 수 없는 지구촌 시대에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존재로서 서로 교류·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상 뿐 아니라 바디아트와 헤어디자인의 경향 분석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의 틀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³⁵⁾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이론의 기본 이념을 알아보고자 바디아트 디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이 나타난 선행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김주현³⁶⁾, 윤숙원³⁷⁾은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을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으로 나누어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였고 원선영³⁸⁾은 데리다의 특성을 탈중심화, 차연, 산중, 상호텍스트성으로 나누어 구성적 접근을 통한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권혜숙³⁹⁾은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을 불확정성, 탈중심성, 상호 텍스트성으로 나누어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리다 해체주의의 네 가지 주요 특성인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으로 요약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4) 조규형(2008), op. cit., p.37.

35) 변영희(2010), 패션뷰티디자인에 표현된 탈 현상성과 자유분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62.

36) 김주현(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p578-596.

37) 윤숙원(2010),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8) 원선영(2000),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권혜숙(2007),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모드와 특성”, 패션비즈니스, 11(5), pp110-123.

1) 차연

재구성의 학문으로서의 해체론은 형이상학을 이항 대립적 개념 체계로써, 현전의 존재론이자 고유성에 대한 욕구로써 재구출하는 반면 탈구성적 학문으로써의 해체론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가능하게 하는 이중 회기의 조건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조건으로서 데리다는 차연을 말한다.⁴⁰⁾ ‘차연’ 그 자체는 하나의 기호가 아니고 어떤 고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시원적으로 구축하므로 시공간적 지시의 틀을 넘어선다.⁴¹⁾

데리다는 차연을 차이에 의한 실체 없음과 연기에 의한 의미의 유보로 설명하는데, 이는 말하는 사람이나 글쓰는 사람이 의도하는 의미가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기의의 현존이 연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체주의는 중심이 부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대체의 유희를 가능하게 한다. 차연은 기호의 의미를 유보하여 의미의 사라짐을 전제하고 흔적은 근원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⁴²⁾

또한 데리다는 차연을 한 묶음의 다발에 비유했는데, 첫번째 이유는 차연이 타자성에 근거한 복잡하고도 상이한 체계로 구성된 복합적이고도 이질적인 집합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 철학자들이 인지한 그리고 철학자들의 담화 속에 자리잡고 있는 차연 혹은 차이를 발체해내어 한꺼번에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³⁾ 헤겔의 변증법,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학적 차이는 이미 모든 것이 차이에 의해 이루어짐을 자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⁴⁴⁾

40) 윤숙원(2010), *op. cit.*, p.12.

41) 제이슨포웰(1983), *op. cit.*, p.186.

42) 권혜숙(2007), *op. cit.*, p.113.

43) 자크데리다(1966), *op. cit.*, p.17.

44) *Ibid*(1966).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시·공간의 초월을 의미한다. 또한 수평과 수직의 대립이 파괴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해체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차연의 다른 양식은 차이지워진 것들의 논쟁을 불러 일으켜 서로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상대를 서로의 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⁴⁵⁾ 즉, ‘차이가 나다(to differ)와 ‘지연시키다’ (to defer) 사이에서 그 의미가 중지된 채로 남아있다는 것으로 데리다는 차연을 통하여 음성중심주의의 상징적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이 의미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공시적 차이로서 공간적 개념의 차이는 언어와 그것이 재현하고자 하는 것과의 차이이며 시간적 개념의 지연은 언어가 재현하려는 현존의 끝없는 유보를 의미한다.⁴⁶⁾

즉, 차연은 그 어떠한 기호도 누군가 특정한 용어에 귀속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는 동일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지연인 것이다.

2) 상호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의미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고 대립함으로써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결국 해체라는 과정을 통해 무한히 의미를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순수화된 텍스트들 안에서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⁴⁷⁾ 그것은 텍스트의 특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텍스트나 기호가 지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으로서의 텍스트의 자기 지시에서 새로이 발견된다.⁴⁸⁾ 데리다는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을 ‘상호 언급’, ‘병행 인용’으로 설명한다. ‘병행 인용’이란 두 텍스트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을

45) 김주현(1999), op. cit., p.580.

46) 김혜정(1997), op. cit., p.25.

47) 제이슨 포웰(1983), op. cit., p.192.

48) Ibid(1983).

말한다. 양쪽 모두를 참조함으로써 중간적 영역에 입지하여 의미 유보를 유도하고 경직선 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즉, 상호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불가능하며 상호언급, 병행인용,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말한다.⁴⁹⁾ 우리의 문화와 현실 또한 구조화, 특히 이분법적인 위계질서에 의해 체계화되어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체계의 내부에서 이분법적 요소들은 위계적이기보다는 이미 본래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⁵⁰⁾

텍스트성은 작품의 의미나 가치를 재현된 대상이나 주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상호관계적인 '장(場)'에 귀속시킴으로써 내적 주관과 외적 세계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 장 속에서 예술작품은 개인에 의해 창조되고 수용되는 고립된 '작품'이 아니라 상징적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되고 재창조되는 '텍스트'가 된다.⁵¹⁾

이러한 작용으로 과거와 현재라는 텍스트는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시간의 개념을 해체하게 되며 상호텍스트성은 해체주의 차연 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는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의 근원적 원리는 반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기원에 의한 반복이라고 하는 내적인 벽, 최초에 있어서 반복에 의해 분할되지 않은 기호는 기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⁵²⁾

즉, 유사점과 차이점이 상호 교차하는 과정에서 두 요소는 오히려 서로의 성향을 더욱 강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상호 텍스트성에 의해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획일화 일원화됨을 거부하며 하나의 개체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49) 허진영(2014), *op. cit.*, p.53.

50) 조규형(2008), *op. cit.*, p.48.

51) 정세희(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 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7.

52) 노영화(2008), *op. cit.*, p.100.

3) 불확정성

데리다는 텍스트의 통일성 및 진실성을 저해하는 모순들 혹은 이중적인 것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해독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텍스트의 의미란 본질적으로 결정 불가능하다고 한다.⁵³⁾ 그러므로 절대적인 개념이란 있을 수 없고 상대적인 개념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체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결국 불완정성이나 비결정성의 한계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그 의미들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기호의 고정적 의미를 해체하면 가의는 고정된 인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확산됨으로써 일관된 의미가 없이 불확정 상태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의미란 불확정적이며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띠고 있다.⁵⁴⁾ 이렇게 데리다는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언어는 그의 체계 속에서는 불확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리얼리티 역시 허위이거나 은유일 뿐이라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⁵⁵⁾ 그러므로 불확정성은 불확실함이 아니라 비결정의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비결정이기 때문에 개방성, 확장성의 특징을 갖으며 지속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하나가 아닌 다수가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되며 상호보완적으로 의미를 생성하여 새로운 질서체계를 확장해가는 것이다.⁵⁶⁾ 결국 의미가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일 뿐이고, 사실의 부재는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다.

53) 권혜숙(2007), op. cit., p.114.

54) Ibid(2007).

55) 윤숙원(2010), op. cit., p.13.

56) 허진영(2014), op. cit., p.54.

4) 탈현상

차이라는 것은 동일성의 반대다. 쉽게 말하면, 동일성이란 같다는 말이고 차이란 다르다는 말이다. 즉 동일성을 강조하면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⁵⁷⁾ 해체는 수학적 세계관의 출발인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종래의 기하학적 어휘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탈현상을 나타낸다.⁵⁸⁾

탈현상이라는 용어는 철학적 해체라는 용어와 유사하다. 이는 하나의 분석적 도구이며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상호관계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무작위라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 즉, 질서라고 알려진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설계과정은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나 단순한 변형의 영역을 초월한 무의식적 설계가 변형만을 통해 전개될 수 없는 이미지의 질서, 근원을 탐구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디자인의 설계과정의 역을 취한다.⁵⁹⁾

데리다는 절대적인 근원이나 기초가 되는 중심적 체계와 통일성의 원리를 해체하여 수학적 세계관의 출발인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종래의 기하학적 어휘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탈현상을 나타낸다. 즉, 탈현상은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단순히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⁶⁰⁾

분석은 어떤 이념이나 주제 혹은 미적인 것으로 통합되지도 않으며, 세상을 좀더 좋게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분석은 단지 반자율적인 상태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따름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의미있게 체험되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낸다고 데리다는 말한다.⁶¹⁾

57) 박영욱(2009), 데리다&들뢰즈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서울:김영사, p.19.

58) 김주현(1999), op. cit., P.581.

59) 김혜정(1997), op. cit., p.45.

60) 이일현(2004), 프랭크 게리 최초의 해체주의 건축가, 경기: 살림, p.44.

61) Ibid(2004), p.44.

데리다의 탈현상은 단순히 형이상학의 부정이 아니라 존재와 부재, 실제와 허구, 본질과 현상, 구상과 추상 등 이원론적인 체제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탈함으로써 절대적인 이성을 배제하고 분해와 재구성을 통해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다.⁶²⁾

탈현상은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주체관을 폐기하고 복수성, 다원성, 파편화, 비결정성 등을 옹호하며, 사회적, 언어적으로 탈중심화되고 파편화된 주체관을 지지한다. 또한 서구 형이상학의 중심주의적 주체를 해체시키고 ‘억압된 것들의 복귀현상’을 가져와 소외된 타자, 즉 동양, 주변문화, 여성, 추, 빈곤 등을 대두시키고자 한다.⁶³⁾ 다시 말해 탈현상은 닫힌 체계 내에서의 지배받는 대상을 거부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무질서를 포용해 준다.

3. 바디아트에 표현된 해체주의

1) 바디아트의 개념 및 유형

(1) 바디아트의 개념

바디아트(Body art)란 신체에 문신(tattoo)이나 피어싱(piercing), 보석장식을 장식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행위에서 비롯되어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을 사용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나 산물이다.⁶⁴⁾ 따라서 인간의 신체는 예술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몸을

62) 윤숙원(2010), op. cit., p.14.

63) 정세희(2009), op. cit., p.22.

64) 이유나(2011), 시플라시움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9.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을 사용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한다. 즉, 바디 아트는 신체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분야의 하나이며 인간의 몸이 예술의 행위자인 동시에 표현의 재료로써 나타나는 예술형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⁶⁵⁾

바디아트는 인간의 신체에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신체를 삼차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간적인 감각과 시간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4차원의 공간표현의 조형예술로, 다른 예술에 비하여 많은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순수 예술은 작가의 작품 의도만이 표현되어지나 바디 아트는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와 작품성만이 아니라 시술을 받는 이의 표현의도와 협조, 시술 후의 시각적 표현성이 어우러져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⁶⁶⁾

초기 바디 아트는 주로 공공장소나 갤러리에서 열리는 퍼포먼스의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뒤 사진이나 비디오 테잎에 담겨진 참고기록형식으로 전시되었다. 주로 마조히즘에서 영감을 얻거나 정신적 구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바디 아트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⁶⁷⁾ 1960년대 미니멀 아트 이후 대두된 바디 아트는 완성된 작품보다는 아이디어나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개념예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바디 아트는 넓게 행위예술과 동일시 할 수 있고 행위예술은 개념미술에서 발전한 것으로, 육체의 운동 및 변화의 여러 조건을 나타냄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 순간의 육체적 변화를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⁶⁸⁾ 현대의 바디아트는 다양한 신체적 표상을 시각적인 요소를 통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에 표현해 냄으로써 여러 가지의 언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신체 표현들은 가시적으로는 색채, 질감, 오브제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지각시켜 감성

65) 최경옥(2009), 아트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7.

66) 김현진(2014),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3.

67) 김영경(2004), “바디 아트의 표현 형태 및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전문대학 논문집, 26, p.293.

68) 최경옥(2009), op. cit., p.27.

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⁶⁹⁾ 오늘날의 바디아트는 예술성과 조형성을 추구하면서 표현상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으며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실험적인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 바디아트의 유형

인류의 발생 초기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습을 따르고 그것에 관련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왔다. 그 관습은 아주 오래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일시적인 장식과 반영구적인, 그리고 영구적인 장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⁷⁰⁾

본 연구에서는 바디아트에 관련된 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바디아트의 유형을 김영경⁷¹⁾, 이유나⁷²⁾, 태동숙⁷³⁾, 김현진⁷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페이스 페인팅, 바디 페인팅, 문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69) 김현진(2014), op. cit., p.34.

70) 이유나(2011), op. cit., p.31.

71) 김영경(2004), op. cit.

72) 이유나(2011), op. cit.

73) 태동숙(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74) 김현진(2014), op. cit.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바디아트의 유형

선행연구	유형구분	연구자
김영경(2004)	문신, 바디페인팅, 피어싱, 헤나	페이스 페인팅
이유나(2011)	문신, 바디페인팅, 변형과 제거	바디 페인팅
태동숙(2011)	헤어 스타일, 페이스 페인팅, 바디 페인팅	
김현진(2014)	페이스 페인팅,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문신

① 페이스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이란 ‘얼굴’과 ‘그리다’를 합쳐놓은 말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을 이용해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일컫는다. 메이크업을 영어로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liet), 또는 마귀아쥬(maquillage)로 표현한다. 즉, 페인팅의 개념은 화장이라는 아름다움을 표출하려는 욕구와 화장, 몸 전체의 치장에서부터 얼굴에 물감을 이용하여 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⁷⁵⁾

페이스 페인팅은 바디아트의 개념으로 초기에는 하나로 묶어진 형태로 시작되어 현대에 와서 바디페인팅, 무대분장, 타투,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 전문성을 띤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기원은 원시미술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원시미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아프리카, 인디언들의 생활상·풍습을 통해 그 원형을 엿볼 수 있다.⁷⁶⁾

현대의 페이스 페인팅은 주제나 여러 기법으로 재료 등에 구속 받지 않고 인간의 신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신체를 다루는 하나의 예술로서 그 방법이 다양하여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 중심과 외적 감

75) 박미정(2014), 페이스페인팅의 유형별 특성,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4.
76) 김현진(2014), op. cit., p.37.

각을 창조하는 것이다.⁷⁷⁾

페이스 페인팅은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써 문화적으로 규정되어진 미의 변천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헤어스타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부보호와 심리적 장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페이스 페인팅은 신체 얼굴에 분장이나 판타지, 동물, 여러 캐릭터 메이크업에서 얼굴에 그리는 것을 모두 페이스 페인팅 이라고 할 수 있다⁷⁸⁾(그림 1).

②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은 물감이나 진흙, 그 외에도 신체에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혹은 의도된 목적에 따라 채색하는 장식방법이다.⁷⁹⁾

지금까지 알려져 온 바디페인팅은 장식설, 유인설, 보호설 등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심리적, 물질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인위적인 수단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신체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는지 밝히기는 매우 어려우나 고대 브리튼(선사시대:스코트랜드 지역) 사람들이 녹색으로 그들의 몸에 염색을 했다는 기록이라든지 BC 5000~1500년대의 사하라 동굴벽화에서 발견된 페인팅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등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⁸⁰⁾

바디페인팅의 색채나 디자인의 모티브와 기법들은 그 특정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믿음, 역사를 응축한 상징적 결정체를 보여주며 이는 치장과 장식으로 외모를 변형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자신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물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⁸¹⁾

77) 태동숙(2011), op. cit., p.33.

78) Ibid(2011), p.33.

79) 김영경(2004), op. cit., p.297.

80) 강민정(2006), 패션누드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7.

81) 김현진(2014), op. cit., p.39.

바디페인팅은 다른 조형적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아름다운 인체의 선을 활용한다는 데 있어서 강한 시각적 전달효과를 가진다. 정지된 상태로 자유로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과는 달리 일회적이고 보존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예술품보다 생동하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적 작품에서 실험적 작품들에게까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⁸²⁾ 바디페인팅은 미학적 기준들과 함께 사람의 몸을 직접적인 예술적 표현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 신체의 순수성과 원초성을 회복하고 존재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예술이 되었다⁸³⁾(그림 2).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신체를 이미지화시켜 재구성하고 무대와 조명, 테마에 맞는 소품, 음악, 특수효과, 모델의 율동과 안무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신체 일부 혹은 신체 전체에 특정 행위나 이미지를 전달하고 극대화 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므로 메시지가 강한 주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창조적이고 조형적인 특성이 부각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⁸⁴⁾

③ 문신

문신(Tattoo)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진피나 피하 조직까지 염료를 넣어 영구적으로 장식을 하는 것으로 신석기 후기에 전 대륙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남태평양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⁸⁵⁾

문신의 어원은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이 1771년 남태평양으로의 첫 항해로부터 돌아와 문신을 유럽에 전하였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타히티인 들의 관습에 대해 쓴 책을 보면 여기서 타히티

82) 정연자(2009), 바디페인팅에 표현된 하이브리드의 이미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9.

83) Ibid(2009).

84) 태동숙(2011), op. cit., p.36.

85) 이유나(2011), op. cit., p.32.

인들의 언어인 타투는 많은 폴리네시아인들의 언어로 두드리거나 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Ta'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⁸⁶⁾

문신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세아니아 마르키즈제도의 기하학적인 문신은 유명하다. 일본에서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세아니아의 문신은 야자껍질로 구운 숯을 사용하여 단색이다(그림 3). 반흔문신은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에게서 볼 수 있으며 아프리카 누바족의 것은 특히 유명하다.⁸⁷⁾(그림 4).

문신은 문화, 종족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며 주술적인 의례로, 범죄자의 표시로, 혹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죽음의 상징적 의미로 표현되어졌다.

또한 문신은 성년을 상징하며 결혼이나 출산, 또는 부적대신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대에는 빠른 유행 주기의 변화로 인해 장식방법도 일시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⁸⁸⁾

이런 현대인들에게 스티커 문신이나 크리스탈 문신, 헤나 문신 등은 장식 방법과 문양의 교체가 용이하다는 점과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이 이용되어 있으며 더욱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⁸⁹⁾

86) 김영미(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Tattoo Look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6.

87) Ibid(2005), p.7.

88) 김영경(2004), op. cit., p.297.

89) Ibid(2004), p.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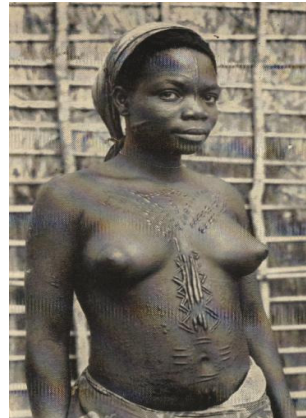
<그림 1> Face-painting
(Art Make-up, 광문각, 2009)



<그림 2> Body-painting
(Art Make-up, 광문각, 2009)



<그림3> Origin Tattoo
(<http://tribaltattooist.com/origin-of-tribal-tattoo-03/>),(2015.3.7.)



<그림 4> Scarification
(http://www.randafricanart.com/Scarification_and_Cicatriscation_among_African_cultures.html),(2015.3.7.)

2) 바디아트에 표현된 해체주의

해체주의의 기본 특징들 중에 절충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편화된 현상은 해체주의의 절대적인 진리나 근원의 독선과 횡포를 거부⁹⁰⁾하였는데, 현대 사회에는 바디아트를 중심으로 여러 양식과 장르의 탈 경계, 그리고 문화의 융합화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디아트 분야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역시 영역의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현상은 개별적인 독립된 문화현상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의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⁹¹⁾

일반적으로 바디아트는 인간의 미적 본능과 끊임없는 욕망에서 일어나는 자기표현의 중요한 수단 중 한 방법으로 현대에 이르러 주제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재료 등에 구속받지 않고 신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하게 되었다.⁹²⁾ 예술에 있어서 해체주의는 이상적으로 추구하였던 표현방식을 해체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통 서구형이상학에서 추구하던 이상적인 미와 쾌는 해체되어 추와 불쾌도 위계관계 없이 동등하게 예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⁹³⁾

해체주의의 특성에 따라 각 영역을 넘어선 무경계성은 시공을 초월해 다중적으로 전이되어 양면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며, 새로움과 극단화의 양극화 및 극단적인 경향으로부터의 탈피와 복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현대 뷰티디자인은 하나의 단편적 이미지보다는 서로 다른 감성이 공존하는 과정을 거치며, 표현의 영역에 있어 확장성과 가변성을 갖는다.⁹⁴⁾

90) 방기정(2010), op. cit., p.41.

91) Ibid(2010).

92) 이경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7.

93) 이상민(2013), op. cit., p.202.

94) 변영희(2010), op. cit., p.80.

해체주의 바디아트는 기존의 전통에 반대하는 대신 먼 과거로부터 디자인의 요소를 가져와 고전적 전통과는 전혀 다른 적용으로 새로운 추상적 예술을 연출시킨다.⁹⁵⁾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여 의식보다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하여 ‘소외’를 미적으로 극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기존 가치와 양식을 붕괴 해체하여 새로운 미를 창조함으로써 탈중심화된 열린 사고를 지향하게 되는데.⁹⁶⁾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창조적인 파괴에 관계된다. 즉 기존 바디아트의 완전성, 좌우대칭, 균형미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색채의 사용도 무한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감각으로 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따른 바디아트의 특성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권혜숙⁹⁷⁾, 방기정⁹⁸⁾, 변영희⁹⁹⁾로 나누어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바디아트에서 보여지게 되는 전략적 표현기법을 퇴폐성, 역사성, 양성성, 유희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95) 이경은(2007), op. cit., p.157.

96) 이수인(1999), op. cit., p.950.

97) 권혜숙(2008), op. cit. pp110-123.

98) 방기정(2010), op. cit. p.90.

99) 변영희(2010), op. cit. p.33.

<표 2> 선행연구에 나타난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따른 바디아트 유형

선행연구	유형구분
권혜숙(2008)	다원성
	양성성
	역사성
	퇴폐성
방기정(2010)	양성성
	역사성
	퇴폐성
	혼합성
변영희(2010)	유희성
	양성성
	역사성
	퇴폐성

➔

연구자
퇴폐성
역사성
양성성
유희성

(1) 퇴폐성

퇴폐성은 한 시대와 양식의 말기적 특징을 묘사하는 관습적인 용어로서 원래 퇴폐주의란 말은 19세기말에 프랑스 및 영국에서 유행한 문학 경향으로, 병적인, 감수성, 탐미적 경향, 전통적 부정 및 비도덕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영혼의 상태와 절대의 세계에 대한 초월적 갈망,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역동적 회구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퇴폐주의이다.¹⁰⁰⁾

이것은 서구 중심의 사고에서 미적 가치로 여겨온 완벽한 조형미를 거부하고, 붕괴 분열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즉 기본적인 조형 원리의 수용을 회피함으로써 절대미의 기준을 전복시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형미를 추구하는 것이다.¹⁰¹⁾

메이크업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것들과의 조합과 의외성을 강조한 더페이스망 기법 등 형식이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자동기술 방법인 오토마티즘 등의 초현실주의 경향을 기발한 위트를 보여 준다. 이는 괴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절망·공포 등 극단적으로 그로테스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¹⁰²⁾ 일탈과 혐오성은 더러움에 감추어진 진실을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더욱 진실된 것으로 만들려는 과시적 빈곤의 표현이자 은폐·미완성·변질을 통해 일탈로 이어지는 파격의 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는 거칠게 굵은 느낌의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작품을 볼 수 있는데 불쾌한 이미지로 매우 퇴폐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장식적 요소의 생략에서 기본요소의 파괴·변형 및 미와 대립된 추의 요소를 미의 범주로 격상시켜 다양한 미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불균형·불완전의 표현방식을 의미한다. 메이크업에서 부자연스러움을 유도하고자 하거나, 완성된 메이크업을 고의적

100) 박선희(2000), “현대패션에 있어서의 그로테스크적 패션메이크업 특성”,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7, p.333.

101) 변영희(2010), op. cit., p.96.

102) 방기정(2010), op. cit.,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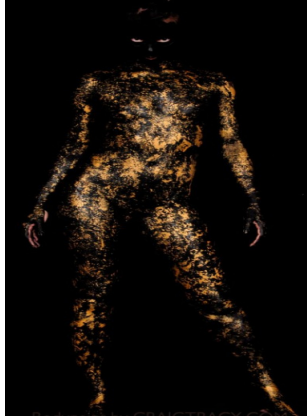
으로 파괴시킴으로써 불완전의 미를 추구한다.¹⁰³⁾(그림 6). 그러므로 퇴폐성은 당대 문화에 대한 반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새로운 문화·문명을 하나의 연속으로 여는 것 또는 적어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⁰⁴⁾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메이크업 방법에서 벗어난 퇴폐적 바디아트는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한다.

<그림 7>에서는 혐오스런 문양으로 가득찬 타투를 볼 수 있는데, 타투는 펑크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혼돈과 무절제 속에서 오는 폭력성과, 저항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퇴폐적 경향은 자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무조건으로 규범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여 성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친 갈퀴 모양에 자극적인 한색 계열의 파란 머리장식의 <그림 8>과 같이 과장된 아이라인과 스테드가 박힌 네크리스는, 퇴폐적 경향의 하위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로 이러한 대중적인 문화의 표현방식은 데리다의 탈현상개념과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103) Ibid(2010).

104) 박선희(2000), op. cit., p.334.



<그림 5> Gold dust
(<http://craigtracy.com/project/gallery-all>),(검색일.2015.2.19.)



<그림 6> Wonderin princess
(<http://cpa-x-e-n-o-i.deviantart.com/art/acrylic-wonderin-princess-323195225>),(검색일.2015.2.19.)



<그림 7> Timthumb
(<https://www.pinterest.com/pin/488499890804351059>),(검색일.2015.2.19.)



<그림 8> Jean paul gaultier
11' F/W
(Inbeauty, Richard Lin)

(2) 유희성

유희성의 사전적 의미로 유희란 특별한 목적 없이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동의 총칭으로, 오락, 유희 등과 함께 ‘우습다, 이상하다, 재미 있다, 유쾌하다, 흥미롭다’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¹⁰⁵⁾

일반적으로 유희는 놀이 형식을 갖고 있으며 인간은 놀이를 하는 존재이다. 놀이는 놀이 이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목적일 때 의미를 가진다. 유희에 대한 개념은 다수의 미학, 철학자들이 예술과의 밀접한 관계로 논의해왔다.¹⁰⁶⁾

유희는 인간의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놀이라는 요소에 관련된 본능적인 욕구를 말한다. 미적 활동과 유희적인 활동은 모두 고도의 상상력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유희는 예술의 상상적인 비약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희나 예술활동은 자발적 활동으로 질서나 구도가 있더라도 충동의 억압이 아니라 충동의 표현으로 본다.¹⁰⁷⁾

유희성과 관련된 메이크업으로는 콜라주 메이크업, 그래픽 메이크업 및 타투 메이크업 등이 있다. 콜라주란 말은 불어의 “Collar”에서 유래된 말로서 일상의 비예술적인 소재, 즉 종이나 형질을 잘라내어 그때 그때의 선택으로 조화되는 기쁨과 더페이즈망의 법칙에 따라 화면에 붙이는 기법을 총칭한다.¹⁰⁸⁾ 예로부터 동서양에 걸쳐서 이러한 콜라주 기법이 사용되어 왔지만 현대에 있어서 콜라주 기법의 도입은 입체파 화가들이 뼈때에 콜레를 이용하여 화면에 재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세밀히 그려져야 할 그림의 일부분에 종이나 형질 등

105) 적가(2015), 현대패션에 나타난 키덜트적 유희성의 표현 방법 및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8.

106) 송영경(2008), 키덜트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05.

107) Ibid(2008), p.105.

108) 이행민(1986), “입체주의의 오브제에 있어 콜라주 기법에 대한 연구”, 교육논총, 6, p. 479.

을 대신 사용하였는데 이에 끌라주는 새로운 가치를 띠며 주목을 받게 되었다.¹⁰⁹⁾ <그림 9>를 보면 눈썹이 위치한 부분에 광택이 없는 종이를 이용하여 눈썹 모양으로 오려붙인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여 재미를 유발시킨다. 이와 같이 끌라주는 적절한 도구나 재료에 따른 얼굴 표현을 무시하고, 얼굴 부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질료를 적용함으로써 부조화를 유도, 시선의 연속적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상적이지 않은 질감을 적용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조형요소를 가미하는 등, 이러한 전위적 표현은 메이크업으로서의 전통적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성을 보여준다.¹¹⁰⁾ 이는 데리다의 불확정성 개념과 포지올리(Renato Poggioli, 1907~1963)¹¹¹⁾의 유희 개념에 의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으로, 얼굴의 조형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의미들이 사라진 재미거리를 준다.¹¹²⁾(그림 10).

메이크업의 이러한 불확정성은 얼굴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조형요소나 비정성적인 색을 가미해 절대미의 미적 질서를 전복시키고, 의도적인 부조화를 유도한다. 이는 틀에 메인 전통 표현방식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조형미를 양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¹¹³⁾ 이러한 유희적 특성은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해주며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그림 11>은 머리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반듯한 직물이 오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요소의 도입을 통해 우연적인 미를 발생시켜 데리다의 유희적 개념에 의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희적 사고방식은 기존의 정형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가벼움을 느끼게 해주며

109) Ibid(1986), p.479.

110) 변영희(2010), op. cit., p.97.

111) 포지올리(Renato Poggioli): 아방가르드 예술 철학자

112) 이윤진(2009), 해체주의의 특성을 표현한 컬렉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두피모발학회지, 5(2), p.1093.

113) 변영희(2010), op. cit., p.98.

흥미로운 요소를 제공한다. 또한 <그림 12>와 같이 신체의 중심부분에 큰 구멍이 뚫려있고, 그것을 통해 가려져있던 의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러한 요소를 응용하여 갑작스런 소멸과 그것으로 인한 의외성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전까지 유희적인 요소들로부터는 비정상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포스트모더니즘 영향에 의해 그 원리가 다르게 인식되어 오늘날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림 9> Christian dior 12' S/S
(Inbeauty, Richard Lin)



<그림 10> Conceptual
(<http://www.fubiz.net/en/2014/03/12/conceptual-body-art-by-emma-fay/>),
(검색일.2015.3.19.)



<그림 11> On aura tout vu
14' F/W
(Inbeauty, Richard Lin)



<그림 12> Landscapes
(<http://www.ilovebodyart.com/natalie-fletcher-landscapes/>),
(검색일.2015.3.19.)

(3) 역사성

역사성은 과거와 미래가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점이 해체주의 이론의 차연으로 인한 탈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메이크업 또한 과거와 미래가 연관되어 현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형태와 결합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세기말적 불안감과 역사주의, 복고풍의 표현이 나타났으며 복고 무드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회귀, 또는 복고성의 이름으로 과거의 스타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¹¹⁴⁾

복고적 패션의 풍조를 말하는 ‘Rotrospective’를 생략해서 일반적으로 ‘레트로’라고 부른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으로 리바이벌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지나간 시대의 패션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재 수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 과거와 현재의 절충은 80년대의 커다란 특징이며 흐름이었다.¹¹⁵⁾

메이크업에서의 시·공간적 혼재성은 과거의 요소를 차용하여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대적 요소들과의 혼성을 노리는 시간적 요소의 메이크업이다.¹¹⁶⁾ 이러한 레트로 메이크업은 시대적 양식의 융합으로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며 현대적인 방향성을 띠고, 단순히 과거에 유행한 메이크업 스타일의 재현을 뜻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응용하거나 새롭게 변화시켜 표현한 메이크업도 포함된다. 레트로 경향으로 표현된 메이크업은 내추럴한 메이크업 보다는 인위적이고 화려한 메이크업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¹¹⁷⁾ 또한 스타일의 가변화에서 창조물의 내부적 속성과 외부자극인 환경을 일치시키며,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¹¹⁸⁾

114) 박혜원(2001), “1990년대 이후 레트로 패션 디자인 연구”, 디자인연구소, 6, p.2.

115) Ibid(2001), p.2.

116) 방기정(2010), op. cit., p.58.

117) Ibid(2010), p.58.

118) 박신미(2007), op. cit, p.94.

레트로의 개념과 유사개념으로 ‘모방’, ‘패러디’ 그리고 사회 동조현상으로 ‘유행’과 함께 설명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의 민족적 측면에서 본 탈중심은 서양 중심주의를 탈피해 타민족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차용함으로써 지역·공간적 경계를 극복하고, 타자로 여겨지던 이국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다양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¹¹⁹⁾ <그림 13>과 같이 인디언 문화의 상징이었던 깃털을 엮어서 만든 모자형태인 워보닛을 쓰고 과거의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을 볼 수 있다. 현재 인디언들은 질병과 문명의 발달에 적응하지 못하고 급격히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과거의 융성했던 모습을 차용한 작품 활동으로서 구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소수민의 요소를 차용해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재조명하고 그에 따른 인식을 재구성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민족성에 대한 양면가치는 무경계적인 혼성 주의로 나타나며, 타 문화권의 이미지를 도입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끼리의 복합적인 이미지 차용 등 전통적·고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지역을 뛰어 넘는 다국적 혼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변 국가의 모티브를 차용해 접목시키는 이국적 경향으로 차별적 신비로운 이미지를 풍길 수 있다.¹²⁰⁾(그림 14). 이러한 현상은 모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표현성을 창출하는 재창조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15>는 서구에서는 획일적인 미의식을 거부한 에스닉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데, 동양의 신비스러움이나 다문화적인 토속적인 것에 다양한 미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국적인 주변 국가의 요소를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창조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텍스트가 공간적으로 연관되어 현존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인 차연으로 설명된다.

<그림 16>에서는 기계같은 차가움을 보이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고 사이키델릭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무채색이나 기계적인 메탈릭한 소재를 사용

119) 변영희(2010), op. cit, p.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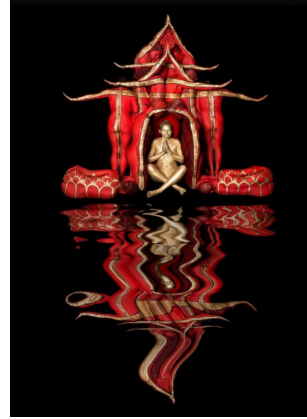
120) 방기정(2010), op. cit, p.66.

하여 다양해진 로봇의 이미지와 첨단 감각을 창출하였다.

바디아트는 공간적 형태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새롭게 결합되는 시간적 형태로도 분리되거나 합성된다. 그러므로 공간적 개념인 차이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인 지연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차연은 바디아트에서 모든 불변의 의미를 제거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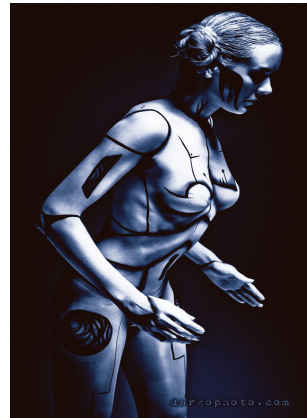
<그림 13> Native pop
 (<http://craigtracy.com/project/gallery-all>),(검색일.2015.3.5.)



<그림 14> Human temple
 (<http://www.ilovebodyart.com/human-temple-bodypainting-trina-merry>),
 (검색일.2015.4.3.)



<그림 15> Armani 14' F/W
 (Inbeauty, Richard Lin)



<그림 16> Robot girl
 (<http://www.ilovebodyart.com/body-paint-audio-playground-snoop-dogg-video>),
 (검색일.2015.2.19.)

(4) 양성성

지금까지 메이크업은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현대에 들어선 많은 남성들도 수행하고 있다. 반대로 많은 여성들도 남성성을 강조하며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이제는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의 경계가 무의미하며, 양성성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서로의 텍스트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성 역할 변화는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텍스트는 서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하고 대립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되고 결국 해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¹²¹⁾

남녀 성역할에 따른 인식이 생물학적 성에서 사회적 성으로 이동하면서 양자대립을 초월한 다양한 성이 출현하게 된다. 성적 측면에 있어 탈중심은 성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녀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억압적인 성역할을 벗어나 해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성의 남성화에서 나아가 중성화 및 양성화로 전이되는 등 복잡·모호한 양상을 보이는데,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를 비롯해 젠더리스(Genderless), 듀얼리즘(Dualism)으로 해석된다.¹²²⁾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여자는 여성성을 가진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비현실적인 고정관념의 한 형태에 불과하며 실제로 인간은 양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양성체의 존재를 추구해왔다. 앤드로지너스란 용어는 이성, 공격성, 용기, 힘 등으로 대표되는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존, 직관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적인 특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간 상태를 의미한다.¹²³⁾ 양성성은 양성사이의 정신적 조화를 암시하며, 또한 특정한 제한으로부터 개인

121) 방기정(2010). op. cit, p.53.

122) 변영희(2010). op. cit, p.100.

123) 박수진(2002), 앤드로지너스 룩의 색채특성, 연세대학교 패션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적인 자유를 추구하여 내재된 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앤드로지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적 혁명을 제공하였고, 남자, 여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추측들을 위협하고 성별(Gender)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¹²⁴⁾

성의 복합적 표현은 인간의 성에서 생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말살함으로써 의복과 외모에서 성적으로 특징적인 아이템을 혼합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소외되고 억압된 것을 부각시켜 총체적인 중심주의를 해체시키고 있다.¹²⁵⁾

메이크업의 성적 측면에서 본 탈중심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신체 특성을 은폐시키고, 남성의 대표적 신체코드를 부각시켜 생물학적 성차에 따른 구분을 초월한다. 이는 과거 성에 따른 주종관계를 전복, 타자성의 수용을 통해 이미지를 다각화하려는 의도를 보인다.¹²⁶⁾ 성의 무경계는 경계를 허물기 위해 성의 특징적인 모습을 통한 고정관념을 파괴하여 양·중성적 이미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남·여의 성을 배제하고 각각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무시한 중성적 이미지로 바디아트를 그려낸다.¹²⁷⁾(그림 17). 이는 데리다의 상호 텍스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가 다원화 시대의 돌입으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보다는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감각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파괴본능이 사회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로 인해 두가지의 성을 모두 지닌 형태인 제 3의 성 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그림 18>은 짧게 자른 머리와 움푹 패인듯한 눈의 음영을 통해 남성성을 강조한 것으로 여성의 남성적 요소를 포함한 양성성을 표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여성의 얼굴에 남성성이 강조되는 윤곽을 만들어주고, 굵고 짙은 눈썹

124) Ibid(2002), p.6.

125) 권혜숙(2007), op. cit, p.117.

126) 변영희(2010), op. cit, p.101.

127) 방기정(2010), op. cit, p.56.

과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19).

이러한 성의 혼합 이미지는 양성적 이미지와 중성적 이미지로 설명되는데, 양성적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중성적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결합되어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림 20>은 전형적으로 투박한 윤곽을 가지고 있는 남성모델의 얼굴에 얇고 둥근 아치형의 눈썹을 그리고,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성의 모습도 아니고 남성의 모습도 아닌 중성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이처럼 양성성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서로의 텍스트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여성의 성 역할이 변화되었고 세계화시대의 돌입으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분보다는 서로의 특징을 동시에 요구하게 되면서 예술분야에서도 이러한 양성성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때문에 양성성은 전형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각자 인간으로서의 개성추구를 원하는 현대인들에 의해 많이 나타난 현상으로 상호 텍스트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17> Orlan

(<http://uk.phaidon.com/agenda/art/articles/2013/june/19/body-artist-orlan-sues-lady-gaga>),(검색일.2015.3.14.)



<그림 18> Channel 13' F/W
(Instyle, Richard Lin)



<그림 19> Channel 14' S/S
(Instyle, Richard Lin)



<그림 20>Phrexian scaled
(<http://www.ilovebodyart.com/victoria-gugenheim-body-painter>),
(검색일.2015.2.22.)

Ⅲ. 작 품 제 작

1. 제작 의도 및 방법

해체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소산으로 예술분야에 있어서 탈중심화를 통한 비판적 해체현상과 후기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대응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에 대해 지금까지 정형화 되어온 이분법적인 전통미를 해체하고 다양한 텍스트를 수용하며 모든 것은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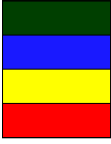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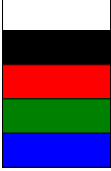

또한 해체주의의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난 작품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고상하고 세련된 작품보다는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성을 나타내는 오락적인 카타르시스의 기능과 함께 현실을 도피하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징을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유희성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각 주제의 특징적인 요소인 퇴폐성, 역사성, 양성성, 유희성으로 나누어 총 6작품의 바디아트 작품을 계획하였다.

작품 I은 '퇴폐성', 작품 II는 '역사성' 그리고 작품 III은 '양성성'을 응용하여 페이스 페인팅 작품을 제작하였고, 작품 IV, V, VI은 '유희성'을 응용하여 바디 페인팅을 제작하였다.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적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작품계획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적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

구분 분류	해체주의 특성		작품명	소재	색채	일러스트
	탈현상	퇴폐성				
작품 I	탈현상	퇴폐성	자유	수성물감 유성물감 펠트원사 헤어초크		
작품 II	탈현상	퇴폐성	무질서	수성물감 유성물감 가루파우더		
작품 III	차연	역사성	전통	수성베이스 수성물감 유성물감 속눈썹		
작품 IV	상호 텍스트성	양성성	양성인	수성물감 유성물감 가루파우더		
작품 V	유희성	유희성	반전	수성물감 유성물감 가루파우더		
작품 VI	유희성	유희성	혼돈	수성물감 유성물감 가루파우더		

2. 작품 제작

1) 작품 I - 자유

(1) 작품 설명

작품 I 은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 중 탈 현상적 특성을 퇴폐성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표 4>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표현하였다. 퇴폐성은 복고주의적 영향에 의한 과거의 팝아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련되거나 우아한 것과는 거리가 먼 노골적인 표현을 중요시한다.

작품 I 은 '추의 미'를 적용시킨 작품으로 인체에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장식을 하여 선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색채의 인위적인 변형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색채와는 다르게 여러 색상을 배색하여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미를 버리고 인위적으로 자극적인 미를 추구한다는 것이 탈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형클어지고 과장된 헤어스타일로 인해 불건전한 양상을 내고자 하였으며, 이는 탐미적 경향과 절대의 세계에 대한 초월적 갈망을 드러낸 것으로 사회적, 정신적 공황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열망을 표현하였다.

(2) 제작 방법

작품 I 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을 사용하여 인체의 곡선을 따라 전체적인 형태감과 균형을 고려하여 도안을 디자인한다.
- ② 전체적인 형태감과 색상의 대비와 조화를 확인하며 페인팅을 한다.

- ③ 세필 붓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라인을 정리해 입체감을 표현한다.
- ④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으로 볼륨을 넣은 뒤 펠트원사와 헤어췌크로 색상을 표현한다.

<표 4>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탈 현상
구성 형태	곡선형태, 보색의 대비
재료	수성물감, 유성물감, 펠트, 헤어췌크
컬러	



<그림 21> 작품 I

2) 작품 2- 무질서

(1) 작품 설명

작품 II는 자끄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 중 탈 현상적 특성을 퇴폐성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표 5>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표현하였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가치관의 붕괴는 고전적인 미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미적 취향에도 새로운 견해가 이입되어 시각적 충격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반미학적 추의미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해체주의의 퇴폐성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마치 찢긴 듯한 모양을 인체에 불규칙적으로 디자인하여 사회적 혼돈에서 오는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조합과 의외성에서 나오는 예술은 반미학적인 추의미를 왜곡의 형태로써 사회적, 정신적 공황 속에서 자아의 파괴를 나타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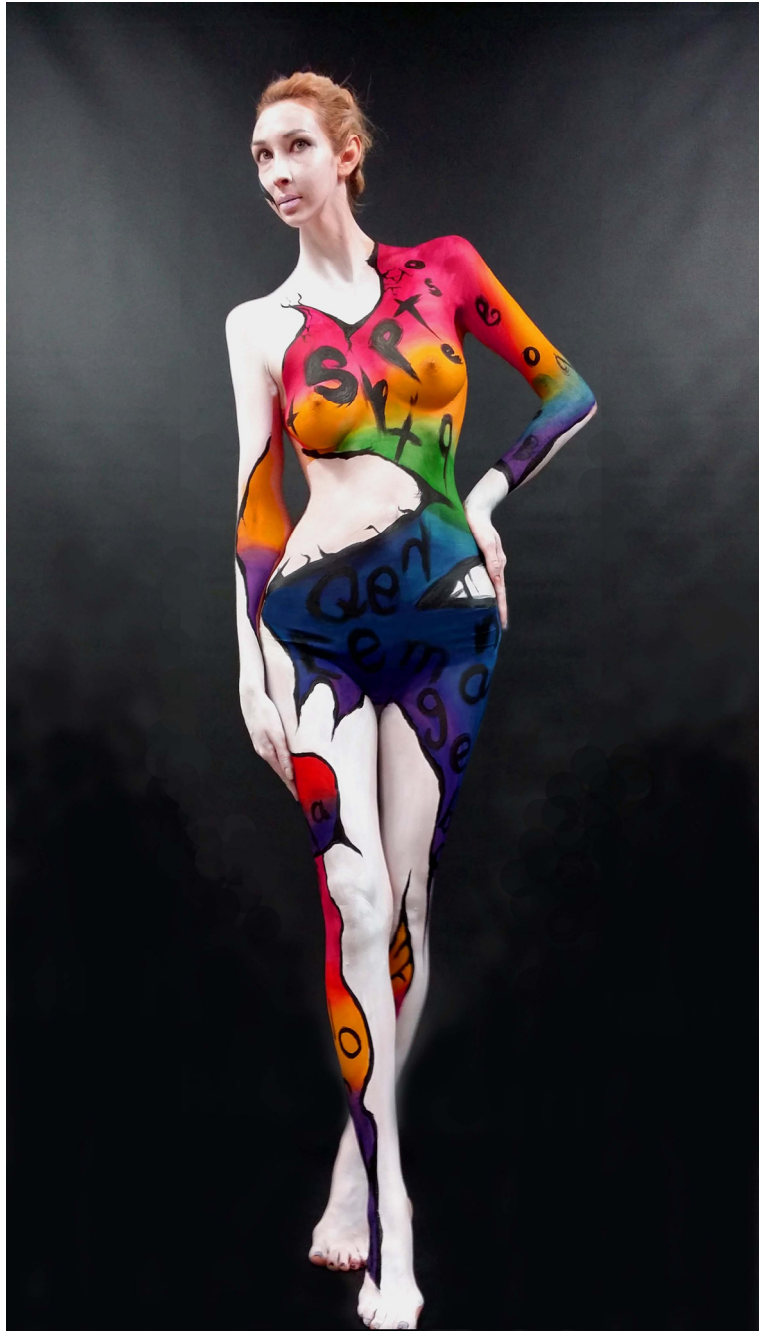
(2) 제작 방법

작품 II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큰 형태부터 도안을 디자인한다.
- ② 디자인의 중심부위를 빨강, 노랑, 주황, 초록, 파랑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도록 페인팅한다.
- ③ 전체적인 형태의 윤곽이 나타나면 붓의 끝부분을 거칠게 다듬은 뒤 글자를 그려 넣는다.
- ④ 찢겨진 듯한 느낌의 선을 부각시키고 오브제를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표 5> 작품 II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유희성
구성 형태	불규칙한 선의 전개
재료	수성물감, 유성물감, 가루파우더
컬러	



<그림 22> 작품 II

2) 작품 3 - 전통

(1) 작품 설명

작품 III은 해체주의 특성인 차연적 특성을 역사성이란 주제로 <표 6>의 디자인 일러스트와 같이 표현하였다.

역사성이란 텍스트가 공간적·시간적으로 과거의 역사적 형식을 차용하되, 혼성모방과 변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과거와 연관되어서도 현존해야 하고, 텍스트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되거나 미래의 형태로도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디아트에 있어서 해체주의의 차연적 특성은 과거의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독특한 형태와 색상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의 기법을 사용해 표현되어야 한다.

본 작품에서는 마치 아프리카의 문양처럼 점과 선을 부각시켜 디자인하였으며, 민족의 특징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새로운 감각을 나타낸 것으로서 아프리카 문화에서 주술적 의미로 그려오던 얼굴장식을 차용하여 현대적인 바디아트로 재해석하였다. 또한 높은 채도의 색상으로 도트(점)를 그려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였으며, 새틴소재의 직물을 엮어 모자형태로 연출한 헤어오브제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고유한 민속적 특성을 세계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예술적 경향으로 현대 예술작품에 수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제작 방법

작품 III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고

려하여 도안을 디자인한다.

② 도안을 스케치 한 후, 전체적인 윤곽이 표현되면 나머지 작은 부분들도 밸런스를 고려하여 색을 칠한다.

③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하여 입체감을 표현하고, 세필 붓으로 도트(점)을 그려준다.

④ 전체적인 색감과 형태를 확인 후 헤어 오브제로 주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표 6> 작품 Ⅲ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차연
구성 형태	원형의 전개
재료	수성베이스, 유성물감, 수성물감, 패브릭(새틴)
컬러	



<그림 23> 작품 III

3) 작품 IV - 양성인

(1) 작품 설명

작품 IV는 해체주의의 특성 중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양성성을 연출한 작품으로 <표 7>의 디자인 일러스트와 같이 표현하였다. 데리다의 이론으로 볼 때, 세계는 하나의 텍스트 이므로, 자율적인 존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는 서로 교차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예술분야에도 양성성의 개념을 도입하게 하였다.

작품 IV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양성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여성모델의 골격에 따른 음영을 색상과 명도의 대비를 통하여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붙어 있는 듯한 눈썹을 그려 강조하는 함으로써 양성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바디아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양성성이라는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로 인해 두 가지의 성을 모두 지닌 형태인 제3의 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된다. 이렇게 서로 상대의 특성을 인용하고 대립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제작 방법

작품 IV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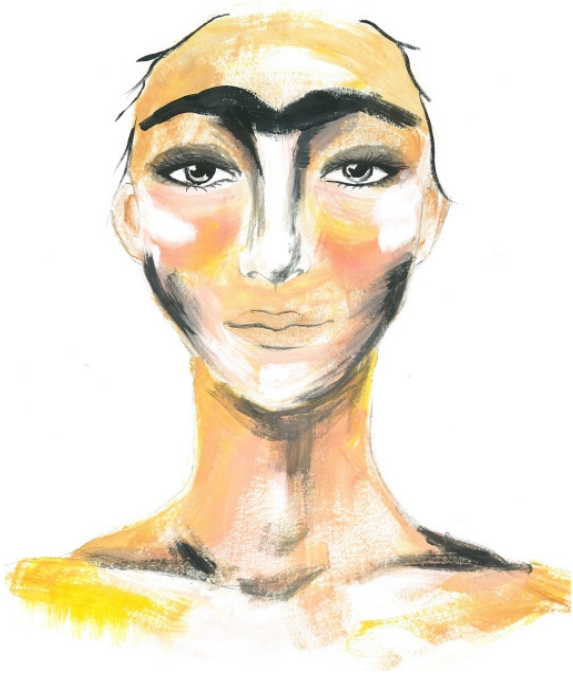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모델의 얼굴 골격에 따라 면적을 분할 한다.
- ②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골격에 따라 색상과 명도의 대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 채색한다.

③ 채색시 브러시의 거친 느낌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전체적인 색감과 형태를 확인 후 오브제를 활용하여 주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표 7> 작품 IV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상호 텍스트성
구성 형태	면적의 전개
재료	유성물감, 수성물감, 가루파우더
컬러	



<그림 24> 작품 IV

4) 작품 V - 반전

(1) 작품 설명

작품 V는 현대화 시대에는 유희를 그 자체로써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 현상을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중 하나인 유희성에 의한 바디아트 작품으로 <표 8>과 같이 디자인을 계획 하였다.

해체주의 바디아트의 유희성은 유치함과 충격적 요소, 왜곡이라는 수단을 통해 텍스트를 해체하거나 해체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우연적인 미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갑작스런 소멸과 의외성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성을 띠고 있으며 오락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본 작품에서는 모델의 신장보다 작은 사이즈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틀의 안쪽으로는 사진이 찍힌 듯, 다채로운 색상을 적용하고 바깥쪽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듯 본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액자의 프레임 안에서 반전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이와 같은 유희적 요소가 정형화 된 바디아트와는 달리 반 미화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미적 감수성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작 방법

작품 V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디페인팅용 흰색 펜슬로 프레임 안쪽으로부터 도안을 디자인 한다.
- ② 색상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색하여 채색한다.
- ③ 프레임을 사용하여 유희적 요소를 부각시켜 연출한다.

<표 8> 작품 V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유희성
구성 형태	곡선의 전개
재료	유성물감, 수성물감, 가루파우더, 프레임
컬러	



<그림 25> 작품 V

6) 작품 VI - 혼돈

(1) 작품 설명

작품 VI은 해체주의 특징인 유희성을 응용한 작품으로 <표 9> 과 같이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유희적 의미란 반 고적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나타났으며 일상적인 규칙의 위반, 변형과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쾌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을 말한다. 이것을 데리다의 해체이론에 적용시켜 본다면 해체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우연적인 미를 발생시켜 유희성 이라는 개념에 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유희적인 의미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형적인 요소를 무시하여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면서, 심각한 의미들이 사라진 재미를 준다는 것이다.

작품 VI에서는 한쪽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접어내면 똑같은 모양이 양면에 찍혀 나오는 데칼코마니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항상 모든 것이 당연하고 정형화 될 수 없는 데리다의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써,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진 표현이 되도록 하였다. 같은 모티브의 선을 사용하였으나 가로와 세로의 방향성을 반대로 표현하여, 비구성적이고 탈 형식을 보여주는 바디아트로 나타내었다.

(2) 제작 방법



작품 VI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가로와 세로 선의 방향성과 신체의 유기적인 곡선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② X자 형태로 디자인 된 중심부위를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의 순서로 그래픽
데이션시켜 페인팅한다.

③ 전체적인 형태감에 따라 검정색의 선의 형태를 표현한다.

<표 9> 작품 VI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유희성
구성 형태	불규칙한 선의 전개
재료	수성물감, 유성물감, 가루파우더
컬러	



<그림 26> 작품 VI

IV. 결 론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그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으며 해석의 불가능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절대적인 미를 추구하는 가치 체계를 대신하여 다양성과 가변성을 인정하는 해체주의는 건축, 패션, 바디아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무질서한 체계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여 열림과 다양성을 추구한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이론을 고찰하고 현대 바디아트에 표현된 해체주의 특성을 분석하여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토대로 내부로부터의 해체를 기준으로 한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불확정성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둘째, 바디아트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유형을 퇴폐성, 역사성, 양성성, 유희성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셋째, 해체주의의 특성을 바디아트에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차연의 해체주의적 특성은 역사성으로 차연은 정태적 개념이 아니며, 상호간에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관되어 존재하게 되기도 하고, 각 지역 간에 문화적 특성이 복합된 예술형식으로 바디아트와 결합되게 되었다.

상호텍스트성의 특성은 양성성으로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열린사회가 지향되면서 전통적인 남녀의 성 역할이 붕괴하였다. 이것은 성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남성다운, 여성다운과 같은 성의 요소를 해체하여 두 가지의 성을 모두 지닌 형태인 제 2의 성 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패션과 바디아트의 분야에서도 양성성을 지닌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탈현상의 특성은 퇴폐성으로 기존의 중심에서 벗어나 소외되었던 비주류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하찮은 것, 일상적인 것, 과거에는 추하다고 여겨 소외된 것들이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미학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불확정성의 특성인 유희성으로는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미의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 완성적이고 우연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바디아트에 있어서 우연적인 형태란 심각한 의미가 사라진 상태로 재미거리를 주고 동시에 재치와 유머를 전달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해체주의의 특성을 분석하여 페이스 페인팅 3점, 바디페인팅 3점, 총 6점의 바디 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II는 해체주의 특징인 탈현상적 특성을 활용하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질서 및 윤리의 타락현상에 따른 불건전한 양상으로 정형화 되어온 전통미를 해체하여 비정상적인 추의 미와 기존의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메이크업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자유로움을 느끼게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역사성에 대하여 미래는 과거와 연관되어 현존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새로운 형태로 결합됨을 나타내었다.

작품 IV는 양성성의 특성을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사라지고 서로의 텍스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상호관계에서 존재에 대하여 부각시켰다.

작품 V, VI은 유희적인 개념에서 모순을 통해 일상적인 규칙을 위반한 부조화로 인해 심각한 의미들이 사라지고 가벼움을 느끼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상반된 방향의 우연적인 미를 발생시킨 것으로 의외의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유희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현대 바디아트에 적용될 때 특징적 형태와 요소들이 어느 일정한 형식을 이루지 않고 서로 간에도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의 결합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

정성의 원리를 만들어 낸다.

이상과 같이 해체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차연성을 띄고 있으며 모든 텍스트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듯이 네 가지의 특성 중 어느 한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해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바디아트는 일반적인 예술분야에 비해 파격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표현력을 추구하고 실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법과 이미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 측면에서 응용되고 변화되고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바디아트가 독자적인 시각예술로서 부각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하여 무한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시도의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권혜숙,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모드와 특성, 패션비즈니스」, 2007
- 강민정, 「패션누드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양은 「ART Make-up」, 경기: 광문각, 2009
- 김영경, 「바디 아트의 표현 형태 및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전문 대학 논문집, 26, pp.291-307, 2004
- 김영미, 「현대패션에 나타난 Tattoo Look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주현,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pp.578-596, 1999
- 김지연,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복식, pp.293-312, 1997
- 김지원,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나는 알레고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연구, pp.93-101, 2013
- 김혜정,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의상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김현진,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노영화, 「원근법 형성과 디지털시대 디자인에 있어서 해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방기정, 「하이브리드의 탈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서희선, 「자연-해체 이미지의 해석과 표현 양식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송영경, 「키털트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원선영,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윤소정, 「해체주의적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윤숙원,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윤재은, 「해체주의건축의 공간철학적 의미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이경은,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이상민, 「해체주의 관점에서 아르망의 오브제 작업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지, 14(3), pp197-205, 2013
- 이수인,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 양식」, 복식문화연구, 7(6), pp941-953, 1999
- 이수미, 「현대 상협공간 실내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혼성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이유나,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이윤진, 「해체주의의 특성을 표현한 컬렉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두피모발학회지, 5(2), pp107-113, 2009
- 이일현, 「프랭크 게리 최초의 해체주의 건축가」, 경기: 살림, 2004
- 이행민, 「입체주의의 오브제에 있어 플라쥬 기법에 대한 연구」, 교육논총, 6,

pp465-507, 1986

- 임기택, 「해체주의와 건축이론」, 서울:spacetime, 2014
- 박미정, 「페이스페인팅의 유형별 특성」,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박선희, 「현대패션에 있어서의 그로테스크적 패션메이크업 특성」, 공주영상정보대학논 문집, 26, pp329-339, 2007
- 박수진, 「앤드로지너스 특의 색채특성」, 연세대학교 패션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박영옥, 「데리다&들뢰즈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서울:김영사, 2009
- 박혜원, 「1990년대 이후 레트로 패션 디자인 연구」, 디자인연구소, 6, 2001
- 방기정,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0
- 방수진, 「자크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변영희, 「패션뷰티디자인에 표현된 탈 현상성과 자유분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적가, 「현대패션에 나타난 키덜트적 유희성의 표현 방법 및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정세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 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정연자, 「바디페인팅에 표현된 하이브리드의 이미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조민희, 「자크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법 여성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최경옥,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태동숙,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하임성,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해체주의적 특성과 앞으로의 전망」, 기초조형학연구, 11(3), pp527-536, 2010
- 한경예, 「Issey Miyake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국외 문헌

- 제이슨포웰(1983), 데리다 평전, 경기:인간사랑.
- Ted W. 제닝스(2014), 데리다를 읽는다 / 바울을 생각한다, 서울: 그린비,
- Richard Lin(2014), Inbeauty, 지역: 파리.

인터넷 자료

- <http://tribaltattooist.com/origin-of-tribal-tattoo-03/> [검색일 : 2015. 3. 7]
- http://www.randafricanart.com/Scarification_and_Cicatrisation_among_Africa_cultures.html [검색일 : 2015. 3. 7]
- <http://craigtracy.com/project/gallery-all> [검색일 : 2015. 2. 19]
- <http://cpa-x-e-n-o-i.deviantart.com/art/acrylic-wonderin-princess-323195>
[검색일 : 2015. 2. 19]
- <https://www.pinterest.com/pin/488499890804351059> [검색일 : 2015. 2. 19]
- <http://www.fubiz.net/en/2014/03/12/conceptual-body-art-by-emma-fay/>
[검색일 : 2015. 3. 19]
- <http://www.ilovebodyart.com/natalie-fletcher-landscapes>[검색일 : 2015. 3. 19]

<http://craigtracy.com/project/gallery-all> [검색일 : 2015. 3. 5]

<http://www.ilovebodyart.com/human-temple-bodypainting-trina-merry>

[검색일 : 2015. 4. 3]

<http://www.ilovebodyart.com/body-paint-audio-playground-snoop-dogg-video>

o [검색일 : 2015. 2. 19]

<http://uk.phaidon.com/agenda/art/articles/2013/june/19/body-artist-orlan-sues-lady-gaga> [검색일 : 2015. 3. 14]

<http://www.ilovebodyart.com/victoria-gugenheim-body-painter>

[검색일 : 2015. 2. 22]

ABSTRACT

Body art representation of Derrida's deconstruction production

Jang, yoo-ri

Make-up · Special Effect Make-up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dern society has witnessed much change in methods of expressing valu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in many fields due to development of informatization technology. In such changing society, body art in the field of fine art culture has been either integrated with or differentiated from other areas pursuing the diversity and also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s and also complicated trends at the same time. In such society, there has been much of confusion in theology and value of modern people ending up pursuing and expressing unique but diversified desires beyond formal and stereotyped structure in order to a certain ego-identity. Hereup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nufacture body art works by analyzing and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ism by Jacques Derrida.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seek for expansion of the field and genre of body art. As for study methods, resources have been

collected from previous researches in degree dissertations regarding de-constructivism and academic journals to theoretically consider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ism Jacques Derrida. After analyzing the image of body art shown with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ism by Derrida, body art work has been manufactured for empirical research. As a result of this study,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ism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of transfiguration, mutual text uncertainty, and decomposi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addition, body art was classified into face painting, body painting, and tattoo. Hereupon,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ism of body art shown hereof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of corruption, history, androgyny, and enjoyment and analyzed thereafter.

Based on them, total six of body art design works including four pieces of face paintings and three pieces of body paintings were planned and manufactured.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ism shown in body art were classified into corruption from decomposition, history from transfiguration, androgyny from mutual text, and enjoyment from amusing features. Work I and II expressed the beauty and freedom of abnormal pendulum by using decomposition-related features that were also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ism. Work III represented the history of expressing integration in a new form, and work IV emphasized characteristics of androgyny existing in mutual relationship. Work V and VI expressed the image of amusement in the form of completeness and coincidence.

Hereupon, we have suggested feasibility of free expression and diversified design of body art by applying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ism on the body art. In addition, it is anticipated for integrated research with wide

latitude to develop body art in the field of fine art.